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원류와 독자성

이승희(李承禧)

I. 머리말

II. 송대 관경변상도와 정토교학

1. 唐代 관경변상도의 성립과 善導교학
2. 송대 新 관경변상도의 출현과 천태교학
3. 남송 관경16관변상도에 구현된 율종승 元照의 해석

III.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독자성

1. 송대 관경16관변상도의 수용과 양상
2.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독자적 해석

IV. 맺음말

한서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저:

「高麗後期 西福寺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天台淨土信仰의 해석」, 『美術史學研究』 279·280(2013.12); 「영산회상변상도 관화를 통해 본 조선 초기 불교 문화의 변화」, 『美術史研究』 28(2014.12); 「1323년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20(2015.10); 「고려후기 입상 아미타불 도상의 재해석-천태16묘관수행법의 영향을 통해서-」, 『美術史學研究』 289(2016.3); 「고려후기 정토문화의 천태적 성격과 영산회상변상도 연구」, 『美術史論壇』 42(2016 상반기); 「조선전기 관경십육관변상도에 보이는 고려 전통의 계승과 변용-정토인식과 왕생관의 변화를 통해-」, 『文化財』 제51권 제1호·통권 제79호(2018.3); 「고려 후기 법화서탑도 조형과 사상 연구」, 『미술사연구』 제34·35호(2018.12) 등

이 연구는 당과 송시대의 서로 다른 관경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적인 특징을 교학적인 해석과 함께 살펴보고, 지역성의 문제를 고찰하여 고려 후기 관경변상도의 원류와 독자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당대 유행했던 관경변상도는 중국의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등지에서 영향력이 컸던 善導교학의 영향 하에 조성되었다. 선도는 『관무량수경』 중 1~13관까지를 정선관이라 하여 위제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위제희가 각 관에 관상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반면 14~16관까지는 산선관이라 하여 위제희의 요청 없이 석가모니불이 대중을 위해 설법한 관이므로 위제희가 표현되지 않는다. 대신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까지도 구원한다는 선도의 정토관이 반영되어 하품왕생자들이 지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미타불을 따라 극락왕생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송대 관경변상도는 당대의 것과 화면의 구성과 도상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당대 관경변상도가 아미타정토변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송대 관경변상도는 아미타정토 변상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형식의 불화로 제작되었다. 『관무량수경』의 서분과 16관도 따로 나누어 두 쪽으로 그리거나 서분을 극도로 약화시켜 표현하고 『관무량수경』의 16관을 강조하였다. 관경16관변상도의 표현에 있어서도 1~13관까지의 장면보다 구품왕생장면이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지는데, 왕생의 과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왕생 이후 극락세계에서 설법을 듣는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왕생자의 극락왕생이 주된 관심사였던 선도의 정토관과는 다르게 왕생 이후에 수행을 통한 성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송대의 관경16관변상도 형식이 고려로 전래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교역항이었던 영파를 통해 12~13세기 경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대 관경 16관변상도의 형식을 계승한 고려 후기 관경16관변상도는 사이후쿠지(西福寺)본과 오타카지(大高寺)본이며, 지온인본과 린쇼지본은 한 단계 진화하여 화면의 구성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이후쿠지본과 오타카지본은 송대 관경16관변상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구품왕생장면의 배치와 구품왕생자의 모습을 보살형으로 표현하는 등에서 고려인들의 정토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지온인(知恩院)본에서 극락세계를 관하는 1~7관과 구품왕생장면을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작게 배치하고, 중앙에 8관부터 13관까지에 해당하는 아미타불, 보살관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마음의 수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을 감득하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보관에 표현된 실제 발원자를 형상화한 듯한 왕생자들의 모습에서 불화 조성의 후원자였던 고려인들의 강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어: 관경변상도, 선도, 영파, 왕생, 수행, 사이후쿠지(西福寺), 오타카지(大高寺), 지온인(知恩院), 린쇼지(隣松寺)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원류와 독자성

이승희(李承禧)

한서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는 『觀無量壽佛經』(이하 『관경』)의 내용을 도해한 정토불화로서 고려후기 정토사상과 신앙, 의식, 정토인식을 담고 있는 불화이다. 『관경』은 경전을 설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序分과 극락정토를 16장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正宗分, 그리고 이어 『관경』을 듣고 얻어지는 이익과 끝맺는 글, 그리고 기사굴산에서 다시 설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¹ 이 중 序分을 그린 불화가 <관경서분변상도>(이하 <서분변상도>), 正宗分을 그린 것은 <觀經16觀變相圖>(이하 <16관변상도>)이다. <서분변상도>와 <16관변상도>를 함께 그린 것을 통칭하여 <관경변상도>라고 한다. 고려후기 관경변상도는 서분과 본분을 따로 나누어 그려져 있는데, 그 중 <서분변상도>가 2점이고, <16관변상도> 4 점이 알려져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16관변상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고려후기 16관변상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5B5A01025652).

1 『관경』을 해석하는 것은 종파와 승려마다 다르다. 淨影寺 慧遠(523~592)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3분과를 사용하였지만 善導(613~681)는 서분, 정종분, 득익분, 유통분, 기사분의 다섯으로 나누었다. 츠보이 슌에이(坪井俊映) 著, 李太元 譯, 『淨土三部經概說』(서울: 운주사, 1995), pp.339-340.

2 시공사, 『고려시대의 불화』(서울: 시공사, 1997)에 <서분변상도>가 일본 후쿠이현의 사이후쿠지(西福寺)본과 1323년 다이온지(大恩寺)본 2점이 실려 있다. 일본학자들은 다이온지본을 송에서 제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이온지본에 관한 국적논란이 있다.

관점에서 연구되었다³. 이 중 고려 16관변상도의 연원에 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유마리는 고려 관경변상도의 연원을 당대 돈황 관경변상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관경변상도가 그려졌던 고려후기와 당과는 70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관경변상도가 고려본의 직접적인 원류가 되었다면 불교사상과 신앙, 사회사적인 맥락 등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고려 관경변상도의 연구는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와 오히라 요시토요(大原嘉豊)는 북송 초에 영파·항주에서 천태교를 주도했던 四明知禮(960~1028)의 정토 교리와 북송 말에 활동했던 律宗僧 元照(1046~1116)의 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이어 이승희는 고려후기 16관변상도가 충렬왕대 이후 천태종의 융성과 교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사상적 영향을 다루었고, 고려의 관경변상도의 원류가 송대 관경변상도에 있음을 언급하였다.⁴ 하지만 송대의 관경변상도로는 〈서분변상도〉 한 점이 일본 나라 엔쇼지(圓照寺)에 전하고, 송대 16관변상도를 모사했다는 일본 불화가 2점만이 전하고 있어 그 원류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과 송시대의 서로 다른 관경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적인 특징을 교학적인 해석과 함께 살펴보고, 지역성의 문제를 고찰하여 고려 후기 관경변상도의 원류를 밝혀보고자 한다. 중국 대륙은 거대한 만큼 불교문화권이 다르고 지역적

3 관경변상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는 양식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었다(문명대, 「高麗 觀經變相圖의 研究」, 『佛敎美術』6, 1981, pp.3-25; 同著, 「韓國의 淨土美術」, 『韓國 淨土思想研究』, 1997). 이후 1990년대 유마리는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관경변상도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도상적 근거를 『觀經』의 내용에서 밝혀냈다(柳麻理, 「1323년 4월作 觀經十六觀變相圖麗(일본 隣松寺藏觀經圖의 研究(Ⅲ)」, 『文化財』28호, 1995.12; 同著, 「麗末鮮初 觀經十六觀變相圖」, 『미술사학연구』208, 1995, pp.5-37). 그리고 고려 관경변상도의 기원을 唐代의 돈황에서 찾아 비교분석하였다(柳麻理, 「中國 敦煌莫高窟(17窟)發見의 觀經變相圖(파리 기메東洋博物館藏)와 韓國 觀經變相圖(日本 西福寺藏)의 比較고찰」, 『講座美術史』4, 1992, pp.41-77; 同著, 「韓國 觀經變相圖와 中國 觀經變相圖의 比較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이후 송은석은 사이후쿠지(西福寺)와 지온인(知恩院) 소장 관경변상도의 화기와 16관계송을 『觀經』의 경문을 비교하여 경전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다(송은석, 「高麗 後期 觀經十六觀變相圖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계송을 번역하여 불교사상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고려 관경변상도가 제작된 정토사상의 성격과 출현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 고려 관경변상도의 연구는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데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高麗佛畫の世界—東アジア美術における領分とその諸相」, 『國華』1313, 2005.3, pp.19-37. 오히라 요시토요(大原嘉豊), 「觀經十六觀變相圖」, 『國華』1313, 2005.3, pp.40-41). 이 두 연구는 송대 영파와 항주 지역에서 성행했던 천태교와의 연관성을 밝힌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국내에서는 이승희는 관경변상도가 제작되던 고려후기의 정토사상과 신앙이 천태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이승희, 「고려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 pp.5-34; 동저, 「1323년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20집, 2015, pp.39-73).

4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5-34; 同著, 앞의 논문(2015), pp.39-73.

특색도 강하다. 현재 각종 기록과 돈황벽화를 통해 볼 때 당·송대 관경변상도가 주로 제작되었던 지역은 크게 섬서, 산서, 하남성을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과 절강성과 강소성을 포함한 남방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관경변상도는 조성시기뿐 아니라 구성과 도상이 다르며, 정토교학적인 기반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고려 관경변상도의 원류가 송대 절강성 지역의 불화에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송대 관경변상도가 고려에 수용된 후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갔는지, 그 독자성이 무엇인지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고려의 관경변상도가 제작된 시기는 송나라가 원에 의해 멸망하고, 고려가 부마국으로서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변동은 고려 관경변상도의 구성과 도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그 양상을 16관변상도 속에 표현된 왕생자의 표현과 화면구성의 변화, 그리고 여인들의 도상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 송대 관경변상도와 정토교학

관경변상도는 기본적으로 『관경』에 근거를 두고 제작되지만 당대 이후 성립된 종파의 정토해석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5세기 劉宋시기에 晁良耶舍가 번역하였다고 전해지는 『관경』은 『아미타경』, 『무량수경』보다 뒤늦게 번역되었지만 중국 불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관경』이 정토교의 중요 경전으로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시기는 6세기경으로 이 시기부터 종파에 관계없이 여러 승려들은 『관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수행생활에 적용시켰다. 대표적인 인물로 曇鸞(476~542)은 『관경』을 접하면서 정토문에 입문하였고, 淨影寺 慧遠(523~592)은 『관무량수경의소』 2권을 저술하였으며, 이후 삼론종의 吉藏(549~623)은 『관무량수경의소』 1권, 道綽(562~645)은 『안락집』 2권, 善導(613~681)는 『관무량수경소』 4권을 지어 『관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⁵ 특히 이들 가운데 관경변상도 제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선도가 거론된다. 과연 선도가 당대 관경변상도의 제작과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의 활동지역과 관경변상도의 사례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唐代 관경변상도의 성립과 善導교학

관경변상도는 서방정토변상에 포함된 개념이다. 서방정토변상은 極樂淨土變相, 西方變, 淨土變, 西方佛會變 등으로 불린다. ‘淨土變’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토삼부경인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경』의 내용을 그린 변상도를 통칭한다.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 의한

5 츠보이 순에이 著, 李太元 譯, 앞의 책(1995), pp.335-339.

변상도는 이미 북위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반면 관경변상도는 비교적 뒤늦은 시기인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서방정토변상이 당대 장안, 낙양 등의 사원에 벽화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은 장언원(815~875)의 『歷代名畫記』, 단성식의 『西陽雜俎續集』, 『太平廣記』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⁶ 서방정토변상의 실존 사례는 돈황석굴에서 볼 수 있다.

돈황에서 관경변상도가 포함된 서방정토변상 벽화는 초당대부터 오대·송초, 서하대까지 총 89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초당대에 조성된 관경변상도는 431굴 뿐이며, 성당대는 22개굴, 중당대 유림굴을 포함하여 43개굴, 만당대 12개굴, 오대 6개굴, 송대 4개굴, 서하 1개굴이 있다.⁷ 관경변상도의 수량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관경변상도는 성당과 중당 시기에 많이 그려지고 만당을 거쳐 송대에 이르러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당대 관경변상도가 다수 제작되었던 배경에는 정토종의 성립과 정토종을 대성시킨 善導의 영향이 크다. 중국 정토종의 초조로 인정받고 있는 담란은 산서성 大同府雁門 출신으로 줄곧 산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지금의 산서성 태원시 일대에 해당하는 并州 大巖寺, 汾州 玄中寺에서 살았다. 그리고 平遙의 산사에서 입적하였다. 그는 보리류지로부터 받은 『관경』을 접한 뒤 정토를 믿게 되었고, 다양한 정토사상적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무엇보다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타력본원설’을 주장하였다.⁸ 담란에게 감화되어 정토교에 입문한 道綽은 『관경』에 대한 주석서인 『안락집』 2권을 통해 염불의 가르침을 설파하였다.⁹ 담란과 도작의 정토관은 선도에게로 계승되어 그의 정토관이 확립되는 데 밑받침이 된다.

선도는 산동성 臨淄縣 출신(혹은 안휘성 胎縣)으로 태종 貞觀 15년(641) 并州 石壁山 玄中寺에 가서 도작에게 『관경』을 배우고 十六觀法을 수행한 다음, 종남산 悟眞寺에서 淨業을 닦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光明寺에 주석하며 귀천을 가리지 않고 교화에 힘썼으며, 불과 3년 만에 성내에 염불 소리가 가득 찼다고 전한다. 그는 『무량수경』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관경』에 표방하여 『관경』에 대한 정영사 해원, 천태대사 지의, 길장의 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선도가 해석한 『觀無量壽經疏』 4권(이하 『觀經疏』, 일명 四帖疏)은 당대 관경변상도의 도상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도가 정토종을 대성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정토왕생사상을 완전히 독립된 실천체계로 구축하였다는 점과 범부의 왕생은 물론이고 五逆이나 정법을 비방한 악인조차도 정토왕생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¹⁰ 그 실천행으로 칭명염불, 전수염불을 강조하였는데, 죄악을 저지른 범부, 번뇌에 싸인 범부, 근기가 낮은 범부라 하더라도 칭명염불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6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亨) 著, 李太元 譯, 『中國淨土教理史』(서울: 운주사, 1997), pp.256-263.

7 施萍婷 主編, 『敦煌 阿彌陀經畫卷』(北京: 商務印書館, 2002), pp.19-86, p.88의 통계표 참고.

8 장휘옥, 『정토불교의 세계』(서울: 불교시대사, 1996), pp.249-262.

9 장휘옥, 앞의 책(1996), pp.262-267.

10 장휘옥, 앞의 책(1996), pp.267-280.

얻어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¹

선도는 『아미타경』 10만 부를 필사하고 정토의 變相을 3백포나 그렸다'고 전한다.¹² 또한 그의 다른 저서인 『觀念阿彌陀佛相海三昧功德法門』에서는 관경변상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觀經』 등에 의해서 정토장엄의 변상을 그려 밤낮으로 관상하면, 현생에서 생각
생각에 80억겁 생사의 죄를 멸하며, 또 경에 의하여 변상을 그려 보배스러운 나무·연못·누각
등 장엄을 관상하면 현재에 無量億阿僧祇劫의 생사죄를 멸한다.”¹³

위의 글은 선도가 관상수행을 위해 관경변상도를 조성하고, 『관경』에 적힌 각 관을 관상하며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관상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경변상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관상수행의 결과로 오랜 겁 동안 쌓인 생사죄를 멸할 수 있다는 부분은 선도의 범부왕생관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토종의 교리를 확립한 담란, 도작, 선도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산서성과 섬서성 장안지역이다. 또한 장언원의 『歷代名畫記』 등의 기록에서 장안, 낙양 등의 사원에 서방정토 변상도가 벽화로 다수 묘사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서방정토변상도가 주로 그려졌던 지역이 중원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¹⁴ 이 중 “낙양의 敬愛寺 대전 서벽에는 西方佛會와 16관 및 염라왕변”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16관 변상도가 사찰벽화로 그려졌다는 실례를 알려준다.¹⁵ 그렇다면 당대 조성되었던 관경변상도는 어떤 형식과 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 1. 돈황 171굴 내부 관경변상도 배치 (『敦煌 阿彌陀經畫卷』, 商務印書館, 2002, 도 110)

11 이태원,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서울: 운주사, 1998), pp.418-470.

12 『佛祖統紀』 卷53(T. 49, 469b14-16), “唐太宗 善導法師至京師造彌陀經十餘萬卷 畫淨土變相三百餘壁 滿長安中並從其化(云云)”.

13 善導, 『觀念阿彌陀佛相海三昧功德法門』 卷1(T. 47, 25a11-12), “……又依經畫變 觀想寶樹寶池寶樓莊嚴者 現生除滅無量億阿僧祇劫生死之罪……”.

14 <두 수도와 기타 지역의 사찰 및 도관의 벽화를 기록>에서 서경(장안)의 光宅寺, 興唐寺, 安國寺, 雲花寺와 동도(낙양)의 敬愛寺 大殿과 東禪院殿, 昭成寺宣에 서방정토변상도가 그려져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歷代名畫記』 卷3, 「記兩京外州寺觀壁畫」 장언원 지음, 조송식 옮김, 『역대명화기』 上(서울: 시공아트, 2008), pp.232-324 참고.

15 張彥遠, 「記兩京外州寺觀壁畫」, 『歷代名畫記』 卷3, “敬愛寺……大殿內……西壁西方佛會 趙武端描 十六觀及閻羅王變 劉阿祖描……”, 장언원 지음, 조송식 옮김, 위의 책, pp.304-305 참고.

돈황 막고굴 벽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대 관경변상도는 독립적으로 그려지기 보다는 아미타서방정토변상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도 1).¹⁶ 『무량수경』 및 『아미타경』에 의한 극락정토변상도가 먼저 조성되다가 뒤늦게 관경변상도가 제작되면서 형성된 구성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돈황 막고굴 관경변상도 벽화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그려진 예가 431굴에 있다. 431굴은 북위시대 개착된 중심탑주 형식의 석굴이지만 <관경변상도>는 초당대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이 굴의 <관경변상도>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관경』의 도상이 초당대 이미 완전히 성립되어 있다는 점과 정토변상도의 주변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로 그려졌다는 사실이다.¹⁷

431굴 <관경변상도>는 동굴의 남, 서, 북 세 벽의 하부에 그려져 있다. 북벽에서는 영취산의 석가설법 장면과(도 2-1) 서분의 이야기를 네 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아사세태자가 아버지를 7층으로 된 건물에 가둔 장면, 어머니인 위제희왕비를 해치려하는 장면, 위제희왕비가 기사굴산을 향해 석가불을 청하는 장면(도 2-2), 위제희 왕비에게 석가불이 十方淨土를 보여주는



도 2-1. 영취산설법장면, 돈황 431굴, 초당 (『敦煌 阿彌陀經畫卷』, 도 68)



도 2-2. 위제희왕비가 석가불을 청하는 장면 (『敦煌 阿彌陀經畫卷』, 도 71)

장면이다. 서벽에는 16관 중 1관인 日想觀부터 13관인 雜想觀까지 묘사되어 있다. 각 관의 장면에는 위제희왕비가 관상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도 2-3). 각 관상장면의 옆에는 명기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관의 명칭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남벽에는 14관부터 16관까지 그려져 있는데, 상품의 상중하, 중품의 상중하, 하품의 상중하로 나누어 총 9장면의 구품왕생장면이 그려져 있다. 각각의 구품왕생장면에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배열되어 있는데, 왕생의 전 과정이

16 정토변상도에 보이는 아미타정토장면과 관경변상도의 다양한 결합방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카와하라 요시오(河原由雄), 「敦煌淨土の成立と展開」, 『佛教藝術』 68(1969), pp.85-107; 施萍婷 主編, 앞의 책, pp.118-124 참고.

17 张景峰, 「莫高窟第431窟初唐观无量寿经变与善导之法门在敦煌的流传」, 『敦煌研究』(2010), pp.34-43 참고. 초당대 석굴 가운데 220굴 <서방정토변상도>에도 『관경』의 요소가 갖추어졌던 것으로 기존에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최근 국내에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재해석하였다. 김혜원, 「돈황 막고굴 제220굴<서방정토변>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9(2010), pp.28-53.

묘사된다. 부처와 제자들이 내려오면, 왕생자는 무릎을 꿇어 예배하여 맞아들이고, 위쪽에는 부처님을 따라 극락왕생하는 장면이 그려진다(도 2-4).

431굴의 16관 장면에서 보듯 序分과 正宗分, 그리고 정종분에 해당하는 16관을 13관과 구품왕생장면으로 나누어 장면을 구성하는 것은 『觀經』에 대한 선도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선도의 『관경소』의 16관경 구분법은 <표 1>에서 定善義, 散善義로 나눈다.

표 1. 善導의 『觀無量壽佛經疏』의 16관경구분법

관경의 16관	분류	설법원인	觀經變相圖의 표현	
정종분	定善義	1관 ~ 13관	‘隨他意’설	위제희 표현○
	散善義	14관 ~ 16관	‘隨自意’설	위제희 표현×

정선의 十六觀法 중에서 日觀(1관)부터 雜想觀(13관)에 대한 해설이며, 산선의 나머지 三觀인 구품왕생을 해설한 내용이다. 선도는 마음을 통일하여 진실한 세계를 보게 되는 관을 정선의라 하였으며 정선의는 관할 대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위제희왕비의 청에 의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隨他意’설이라고 하였다.¹⁸ 431굴을 비롯한 당대 16관변상도에서 1관부터 13관까지 위제희의 형상이 표현되는 것은 위제희의 요청에 의해 설해졌기 때문으로 선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반면 後의 三觀(14, 15, 16관)은 미래세상의 산란한 마음을 가진 범부를 위해 석가불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隨自意’설이라고 하며, 위제희의 요청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제희는 표현되지 않는다.

선도 사상의 영향은 구품왕생 장면 중 下三品の 장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인다. 『관경』에서 하품왕생자는 모두 악인으로,¹⁹ 그들은 평생의 악업으로 임종 시에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을 觀念한

18 『觀經』에 설한 16관을 이해하는 것은 종파마다 승려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흔히 16관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로서 定善觀, 散善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定善이란 定心에 머물러 수행하는 선근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잡념이 없게 하여 명상에 들어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통일하고, 그것을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이다. 散善觀은 석존께서 미래세상의 산란한 마음을 가진 범부를 위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慧遠(523~592)은 십육관을 모두 定善觀으로 보아 16관 모두를 ‘觀’할 대상으로 보았다. 혜원의 『觀音義疏』에서 열여섯 가운데 처음의 일곱 문은 依報라 하여 정토의 장엄을 관하는 것이고, 뒤의 아홉 문은 正報라 하여 불·보살을 생각하여 관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즉 제1일상관부터 제7화좌관까지를 依報觀이라고하고, 제8像想觀부터 제16下輩觀까지를 正法觀이라하여 관경의 16관을 모두 관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정토종을 대성시킨 善導는 16관을 둘로 나누어 13관까지를 定善觀이라하였고 뒤의 3관은 散善觀이라 하여 석존께서 미래세상의 산란한 마음을 가진 범부를 위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隨自意’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제1관부터 7관까지는 정토의 장엄을 생각하여 관하는 것을 밝힌 것이므로 依報觀이고 제8관부터를 正報觀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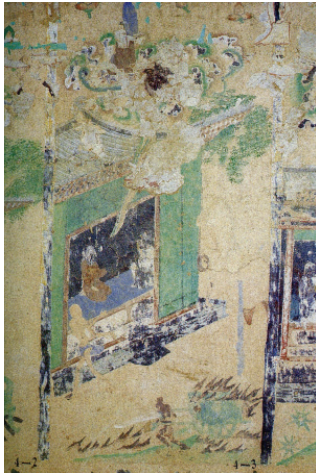
19 善導, 『觀無量壽佛經疏』卷4(T. 37, 270c17-277a13) “……上品上生位中……此即修學大乘上善凡夫人也……上品中生者已下……即是大乘次善凡夫人也……從上品下生者已下……即是大乘下善凡夫人也……從中品上生者……即是小乘根性上善凡夫人也……從中品中生者……即是小乘下善凡夫人也……從中品下生已下……即世善上福凡夫人也……從下品上生者……即世造十惡輕罪凡夫人也……從下品中生者……即世破戒次罪凡夫人也……從下品下生者……即世具造五逆等重罪凡夫人也”.



도 2-3. 위제희왕비가 寶樹를 관상하는 장면
(『敦煌 阿彌陀經畫卷』, 도 76)



도 2-4. 상품상생 장면
(『敦煌 阿彌陀經畫卷』, 도 86)



도 2-5. 하품중생 장면
(『敦煌 阿彌陀經畫卷』, 도 93)



도 2-6. 하품하생 장면
(『敦煌 阿彌陀經畫卷』, 도 94)

이후에야 비로소 면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431굴의 하품 왕생자들은 비록 몸이 불의 지옥, 劍樹로 표현된 刀山지옥, 확탕지옥과 같은 극한 환경 속에 표현되어 있지만 상품과 중품 왕생자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하고 있다(도 2-5, 6).²⁰ 이처럼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까지도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염불수행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도의 해석은 매우 대중 친화적이다. 결과적으로 경전을 접하고 읽기 어려운 일반대중에게 그의 사상과 염불법은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 송대 新 관경변상도의 출현과 천태교학

본 장에서는 선도의 정도해석과 다른 관점에서 제작된 16관변상도가 중국의 절강·강소지역에서 출현하였고, 그 사상적인 배경을 천태교학에 두고 있음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당대 불교는 정도종을 비롯한 각 종파가 크게 융성하며 사상적인 꽃을 피웠지만 무종시기인 845년 회창의 폐불로 큰 타격을 받았다. 後周시기 세종이 현덕 2년(955) 다시 파불을 단행하여 실질적으로 남방 오월지방을

20 张景峰, 앞의 논문(2010), p.36.

제외하고 불교의 자취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오월왕 錢弘俶(929~988)은 불교를 신봉하여 天台德昭(891~972), 螺溪義寂(919~987), 永明延壽(904~976) 등 여러 고승을 우대하였다. 그리고 회창의 폐불로 사라진 천태전적을 새롭게 갖추는 등 천태승려들의 활동을 진작시켰다. 오월~송대에는 선종을 비롯하여 천태종, 화엄종, 율종 등 각 종파의 승려들이 서방왕생을 기원하며 정토교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중 천태종승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중흥종인 나계적의를 비롯하여 寶雲義通(964~1032), 광교징옥, 석벽행정, 그리고 그들 문하에서 수많은 서방원생자가 나왔다. 그들은 절강성 항주와 영파, 강소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²¹

중국의 절강, 강소지역은 전통적으로 천태종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다. 수대 천태종을 개창한 天台智顗(538~597)의 주 활동무대가 절강성과 강소성 지역이다. 지의는 지금의 하남성 상성현에 있는 대소산에 올라가 慧思(515~577)를 뵈고, 보현도량에 들어가 법화삼매를 깨달았으며, 주로 금릉(현재 강소성 남경)을 무대로 활동하며 『법화경』과 『대지도론』 등을 강의하였다. 575년에는 절강성 태주지역에 있는 천태산에서 修禪한 후 들어가 국청사를 세워 천태본산으로 삼았다. 그는 一心三觀을 주장하며 마음을 관하는 觀心을 고취시켰다.²² 일심삼관의 수행법을 적용하여 그는 『관경』을 해석한 『관무량수경소』(이하 『관경소』)를 지었다.

천태지의의 관경 해석은 북송초 승려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승려들이 천태지의의 『관경소』를 토대로 해석서를 저술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천태지의의 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평을 받는 四明知禮(960~1028)이다. 그는 천태지의의 『관경소』를 해석한 『觀經融深解』(1014년), 『觀無量壽經疏妙宗鈔』(1021년)를 지어 16관수행의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을 결합시켰다.²³ 또한 ‘念佛施戒會’라는 念佛結社를 조직하여 대중을 널리 포섭하여 지역사회에 정토신앙을 저변화시키는 한편 延慶寺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²⁴ 염불결사조직이 16관수행을 했다는 사실은 介然이 元符二年(1099년)에 사명지례가 주석했던 연경사에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16觀堂을 건립했었던 사실로도 알 수 있다.²⁵

염불시계회는 1013년 창건되어 남송이 멸망하는 1279년까지 260여 년간 지속되었다. 염불결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천태지의의 『관경소』 해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중들 사이에 16관수행이 성행하면서 관경변상도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북송말에 활동했던 율종승인 靈芝元照(1048~1116)가 쓴 『觀經九品圖後序』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21 모치즈키 신코 著, 李太元 譯, 앞의 책(1997), pp.345-370, pp.385-415.

22 모치즈키 신코 著, 李太元 譯, 앞의 책(1997), pp.111-112.

23 강남지역에서 천태사상에 기반을 둔 16관수행이 정토왕생을 위한 수행의식으로 정착되면서 宋 孝宗代(1127~1194) 항주 上天竺寺에도 16관당이 건립되었다. 린 메이우(林 鳴宇), 『宋代天台教學の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2003), p.699 참고.

24 북송대 천태종승들의 염불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순,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연구-천태교단을 중심으로-』 (서울: 비움과 소통, 2014), pp.158-219.

25 朴菴首座清哲, 『延慶重修淨土院記』, 『樂邦文類』卷第3(T. 47, 185a07).

“……十六觀經 觀無量壽經을 보지 아니함이라. 九品の 生相을 알지 못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하여 所見을 견지함이니 스스로 도탄을 달게 받음이라.……장차 도속이 아직 經本을 열람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장인에게 명하여 九品の 相을 그리게 함이라,……이에 경문을 수순한 연후에는 여러 가지 계송으로써 이를 격려함이라.……이에 相을 因하여 눈여겨보아 움직임과 같음이니 글로 인하여 생각을 움직임이니 이는 반드시 믿는 것, 理解하는 것, 수행하는 것, 往生하는 것이 이에 있음이니, 까닭에 두루 미치어 의심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 모두 다 왕생의 因種을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라.……”²⁶

‘관경구품도’라는 제목을 통해 관경변상도의 주요장면이 구품왕생장면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이 경전을 읽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관경구품도를 그렸으며, 경문을 계송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變相을 읽는 것이 경전을 읽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임을 설명하고 있다.²⁷ 특히 『관경』을 보지 않아 구품의 生相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은 16관 장면 가운데서도 구품왕생장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송대에 16관변상도에서 구품왕생장면을 크게 부각하여 그렸다는 사실은 북송초 천태승려인 慈光文備가 <구품도>, <16관경과>를 지었다고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²⁸

구품도가 강조된 관경변상도 형식은 일본의 나라 아미다지(阿彌陀寺) 소장 <16관변상도>와 일본 교토 초코지(長香寺) 소장 <16관변상도>에서 볼 수 있다.²⁹ 초코지본은 아미다지본을 모본으로 그린 것으로 두 불화의 화면구성과 도상은 일치한다. 아미다지 소장 <16관변상도>는(도 3) 일본 헤이안 말기 율종승려 초겐(重源, 1121~1206)이 절강성 영파에서 가져온 불화를 모사한 것이다. 초겐은 송나라에 3차례 입송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167년 3월에 입송하여 1168년



도 3. <관경16관변상도>, 일본 가마쿠라(鎌倉)시대, 비단에 채색, 128.5×61.5cm, 일본 나라 아미다지(阿彌陀寺) ('고려불화대전', 국립중앙박물관, 2010, 도 98)

26 元照, 『觀經九品圖後序』, 『樂邦文類』卷第2(T. 47, 170b23), “……斯由不見十六觀經 不知九品生相 不信彌陀願力 而堅持所見 自甘塗炭……將恐道俗未閱經本 乃命工圖繪九品之相……隨於經後 各以偈頌爲之激勵……若乃因相以舉目 因文而動懷 是必有信者解者修者生者焉 以至疑者謗者 莫不皆爲往生因種……”.

27 원조 이외에 북송대 승려인 慈雲懺主 遵式, 檀庵 有嚴이 16관 계송을 남기고 있다. 16관 계송은 고려의 사이후쿠지, 지운인, 린쇼지 소장 <16관변상도>에도 쓰여 있다.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17의 주 14 참고.

28 모치즈키 신코 著, 李太元 譯, 앞의 책(1997), p.346.

29 야마카와 아키(山川 曉), 「長香寺本觀無量壽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宋代 淨土教繪畫の受容と展開—」, 『美術史』 142 (1997), pp.139-155.

가을 榮西와 함께 입국했다는 기록이 『元亨釋書』권14 重源傳에 있을 뿐이다.³⁰ 초젠은 四明(절강성 영파의 옛이름)을 통해 입송하여 송판일체경과 16나한도, 아미타불도, 16관변상도 등을 청래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저서인 『雀扇集』에 “十六觀想一鋪”를 청래했다는 기록에 나온다.³¹ 따라서 일본에 송대 <16관변상도>가 12세기 후반경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비록 모사본이기는 하지만 아미다지본을 통해 송대 <16관변상도>의 원형을 재구성할 수 있다.

아미다지 <16관변상도>를 살펴보면, 128.5×61.5cm의 작은 화폭 상단에 ‘觀經十六觀變相’이라는 글귀가 적혀있고, 그 아래 중심부에 붉은 해를 그린 일관이 자리잡고 있다. 일관 옆에 석가모니불이 위계희왕비의 부름을 받고 기사굴산에서 내려와 왕궁에서 설법을 하는 『觀經』 서분 장면이 간략히 묘사되어 있다. 당대 관경변상도에 서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그려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2관부터 7관까지는 화면의 향우측, 8관부터 13관까지는 향좌측에 구획을 나누어 배치하고, 화면 중단과 하단에 걸쳐 구품왕생도가 펼쳐져 있다. 구품의 왕생자가 있는 공간은 극락정도로, 연화좌 위에 합장을 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들 앞에 전각 안에는 아미타삼존불과 권속이 자리하고 있다. 구품왕생 장면에서 유의해서 볼 점은 상품의 왕생관(14관)의 위치가 화면상 가장 하단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하품의 왕생관(16관)은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아미다지 소장 <16관변상도>를 통해 송대 관경변상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아미다지본이 영파 지역의 16관변상도를 모본으로 제작된 만큼 영파지역 불화의 특징과 신앙양상을 보여준다. 『관경』 서분의 장면이 극도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관경』이 조성되게 된 배경보다는 『관경』에 근거한 관상수행이 직접적인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미다지본의 원본 크기를 알 수 없지만 당시 일본에 전래된 아미타불화의 크기가 작은 규모의 두루마리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원본도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6관변상도가 관상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인 수행공간에 걸어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배경에는 염불결사가 사회에 정착하면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수행이 일상적으로 행해졌고, 그러한 수행공간에는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화를 걸었을 것이다. 꼭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미타불도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걸어두었던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었다. 개인 수행을 위한 불화 수요의 증가는 전문적인 직업화가들이 공방에서 불화를 제작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도 궤를 같이 한다.³²

송대 관경변상도는 당대 불화와 비교하여 볼 때 화면 구성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대 관경변상도가 극락정도도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분과 16관의 내용이 빠짐없이 자세히 표현되었던

30 초젠의 입송과 행적에 관해서 나카오 타카시(中尾 堯), 『日本の名僧, 旅の勸進聖 重源』(東京: 吉川弘文館, 2004), pp.66-67, 이와타 시게키(岩田 茂樹), 「重源の生涯とその事蹟—佛像を中心に」, 『大勸進 重源』(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6), pp.10-11.

31 마스키 류스케(増記隆介), 「南都眉間寺舊藏羅漢圖試論」, 『大和文華』 106(2001), p.15.

32 기타자와 나쓰키(北澤 菜月), 「寧波佛畫の居場所」, 『聖地寧波』(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pp.251-253.

것과는 달리 송대 관경변상도에서는 서분변상도 장면이 매우 약화되거나 따로 제작되었다.

16관의 도상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당대 16관변상도에서 1~13관까지의 장면에 위제희왕비가 빠짐없이 등장하여 각 관을 관상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비해(도 2-3) 아미다지본의 1~13관에는 위제희왕비의 모습이 생략되어 있다. 구품왕생장면도 크게 다르다. 당대의 구품장면에서는 현실공간 즉 왕생원과 같은 건물 안에서 왕생자가 불·보살의 내영을 받은 후 그들을 따라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에 비해 아미다지본에서는 왕생자가 모두 극락에 왕생하여 연지에서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극락세계가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의 변화는 『관경』의 해석이 선도의 사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의 배경에는 영파를 중심으로 한 절강성, 강소성지역에 퍼져있던 정토사상과 신앙, 수행문화 등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천태사상에 근간을 둔 정토신앙이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북송초 황실의 후원과 산가파와 산외파의 논쟁 등 활발한 천태교학적 연구, 대중을 기반으로 한 염불결사, 불교의식의 정비 등이 여러 요인이 있다.³³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절강성, 강소성 지역에서는 관상수행을 목적으로 한 관경변상도 형식이 새롭게 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남송 관경16관변상도에 구현된 율종승 元照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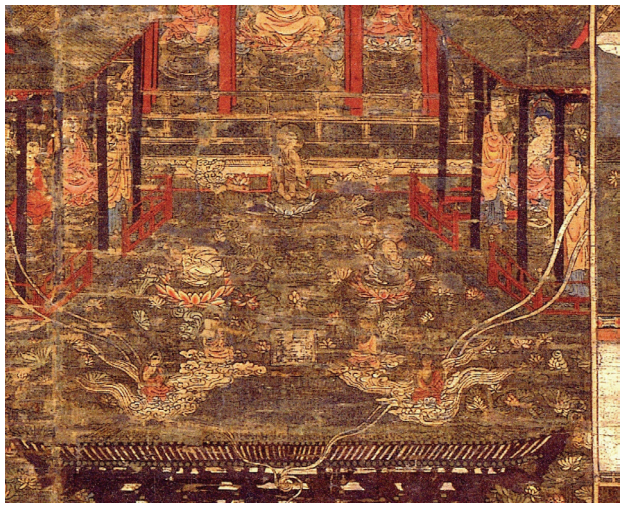
관경변상도는 『관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상이나 방제, 혹은 계송에 그 해석이 반영된다. 아미다지본을 통해서 당대 중원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관경변상도와 다른 형식의 불화가 북송대에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미다지본에는 율종승 靈芝元照(1046~1116)의 해석도 반영되어 있다. 원조는 절강성 항주사람으로 천태승려에게 사사받았으나 후에 남산의 율의를 배워 율종승이 되었으며 말년에 정토에 입문하여 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³⁴ 천태에서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菩薩種性を 지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근기에 따라 성불하는 수행방법과 기간이 다르다. 근기가 높은 사람은 『법화경』을 독송하는 등의 자력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지만, 근기가 낮은 사람은 염불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원조는 근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적인 접근보다는 선도교학을 일부 수용하여 왕생자를 모두 凡夫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원조의 입장은 아미다지 <16관변상도>에서 구품왕생자의 형상과 명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품(14관)의 왕생자는 보살의 형상으로, 중품의 왕생자(15관)는 승려의 모습으로(도 3-1), 하품(16관)의 왕생자는 화생하고 있는 속인의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각각의 구품 장면 옆에는 ‘菩薩衆’, ‘聲聞衆’, ‘人民衆’이라는 명문이 기록되어 있어 왕생자를 구체적으로

33 김성순, 앞의 책(2014), pp.95-248.

34 모치즈키 신코 著, 李太元 譯, 앞의 책(1997), pp.371-372.

보살과 성문, 인민으로 인식하여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조의 왕생자 분류는 원조가 저술한 『觀無量壽佛經義疏』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선도는 『觀無量壽佛經義疏』에서 구품의 種性에 따라 14관의 상품삼생을 대승의 범부, 15관의 중품삼생을 소승의 범부, 16관의 하품삼생을 악을 만나는 범부라 판단하여 전부 범부왕생 한다고 밝혔다.³⁵ 원조는 선도의 왕생자의 분류방식을 계승하여 아미타정토에 왕생하면 삼배와 구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菩薩衆’, ‘聲聞衆’, ‘人民衆’으로 나누었다.³⁶



도 3-1. 중품(15관) 왕생자의 모습

선도를 계승한 원조의 사상은 아미다지본과 같은 모본으로 조성한 초코지본에서도 보이고 있어 일본 학자 야마카와 아키(山川 暁)는 관경변상도가 11세기 후반에 元照의 주변에서 성립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³⁷ 하지만 송대 정토신앙의 전개과정과 염불결사의 성행, 16관계송과 같은 기록 등을 볼 때 원조가 활동하기에 앞서 북송초에 이미 새로운 관경변상도형식이 출현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당대의 관경변상도는 무량수불세계를 중심으로 주변부에 배치되어 관상수행을 통해 무량수불세계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위제희왕비의 관상장면과 하품왕생자의 지옥도상 등을 통해 장안을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에 활동했던 선도의 교학적 영향이 보인다. 반면 비록 모사본을 통해 유추하기는 하였지만 북송대에 이르러 『관경』의 16관 장면면을 독립시킨 <16관변상도>가 절강성, 강소성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지역은 천태지의의 정토사상을 계승한 천태승려들의 활동 영역이었다. 특히 염불시계회와 같은 염불결사의 조직원들을 비롯한 소규모 결사자들이 관상수행을 위한 불화로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5 张景峰, 앞의 논문(2010), p.36.

36 元照, 『觀無量壽佛經義疏』 3卷(T. 37, 299c), “今明上三品即彼菩薩衆也 中三品即彼聲聞衆也 下三品即彼人民衆也”.

37 야마카와 아키(山川 暁), 앞의 논문(1997), pp.139-155.

Ⅲ. 고려 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독자성

1. 송대 관경16관변상도의 수용과 양상

송대 관경변상도가 주로 절강성 영파를 통해 고려로 전래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승려들이 영파를 통해 송에 입국하여 송의 선진적인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³⁸ 영파의 공방에서 제작된 불화들을 다수 수입하여 헌전하고 있다.³⁹ 그 예로 일본 나라 엔쇼지(圓照寺) 소장 〈觀經序分義變相圖〉는(도 4) 화면 우측 중간 부분에 “四明趙寧華筆”이라는 화기가 있어 사명사람인 조영화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송, 요, 금과의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았던 고려에 비해 일본은 송과의 해상교류가 자유로웠다. 하지만 송과 고려와의 해상교류도 1073년 공식적인 무역항으로 영파가 지정된 후 양국간 교류가 본격화되었고, 정치·외교적 루트로서 뿐 아니라 경제문화교류도 이루어졌다. 1127년 송이 금에게 패배하여 항주를 도읍으로 남송을 세운 후에는 정치적 교류가 단절되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었다.⁴⁰ 특히 13세기 전반 무인 집권기에 남송대의 불교문물이 다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송대 간행된 법화경 같은 서적류나 1200년에 쓰여진 『낙방문류』와 송대 간행된 각종 왕생집, 13세기 중반 선승들과 영파 연경사 승려와의 서신교환 등이 양국간 불교문화 교류의 주요 사례이다. 따라서 11세기 후반 이후부터 13세기 중반 경에는 송과의 교류를 통해 영파 지역의 불화가 고려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도 4. 〈관경서분변상도〉, 남송~원, 비단에 채색, 112.9×59.7cm, 일본 나라 엔쇼지(圓照寺) 소장
(『聖地寧波』, 奈良國立博物館, 2009, 도 64)

고려 후기 관경변상도가 제작되었던 배경에는 원간섭기에 천태종을 우대했던 역사적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고려에서는 義天(1055~1101)이 송에 유학하면서 천태교학을 받아들여 뒤늦게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은 천태관련 해석서를 교장에 편입, 유통시켜 천태교학이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의천의 사후 천태종은 선종에 편입되어 부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12세기 전반경 무인집권기에 중앙 불교교단에 대한 반발로서 지방을 거점으로 신앙결사가 생겨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강진을 거점으로 천태승인 圓妙(1163~1245)가 결성한

38 다니구치 코세이(谷口耕生), 「聖地寧波をめぐる信仰と美術」, 『聖地寧波』(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pp.6-16.

39 기타자와 나쓰키(北澤 菜月), 앞의 책(2009), pp.251-253.

40 김해중, 「高麗와 宋과의 교류」, 『國史館論叢』 8(1989), pp.1-23; 이진한, 『고려시대 송상왕래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11).

백련결사는 천태정토신앙의 성행을 촉진시켰다. 백련결사자들은 四明知禮를 흠모하고 사명의 법손들이 머물렀던 연경사 승려들과도 교류하였다.⁴¹ 백련결사의 제3대주인 천책(1206~13세기 중반)은 후에 무인집권세력을 몰아내고 왕정복고를 이룬 지배자계층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이들 문인세력은 원간섭기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천태종이 불교교단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충렬왕대 왕실의 원당으로서 妙蓮寺(1284년)를 창건한 일은 귀족사회에 천태정토신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백련결사의 결성과 왕정복고세력과의 친분,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천태종이 불교교단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점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관경변상도가 조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고려후기 16관변상도는 모두 묘연사가 창건되고 국가차원에서 교학적인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주로 조성되었다.⁴² 총 4점의 <16관변상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이 사이후쿠지(西福寺)본과(도 5) 오타카지(大高寺)본이고(도 6), 두 번째 유형이 지온인(知恩院)본과(도 7) 린소지(隣松寺)본이다(도 8). 첫 번째 유형은 1관부터 13관까지의 『관경』 장면을 작게 그리고, 구품왕생장면을 크게 부각시킨 형식이다. 반면 두 번째 형식은 구품왕생장면이 축소되고, 8관부터 13관까지를 화면에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16관변상도에서 어떠한 요소가 고려후기 사람들의 정토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그 독자적 해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유형	 <p>도 5. <관경16관변상도>, 고려 14세기 초, 비단에 채색, 202.8×129.8cm, 일본 福井縣 사이후쿠지(西福寺) 구소장 ('고려시대의 불화', 시공사, 1997, 도 54)</p>	 <p>도 6. <관경16관변상도>, 고려 13~14세기, 비단에 채색, 183.0×121.0cm, 일본 茨城 오타카지(大高寺) ('고려불화대전', 도 13)</p>
------------	--	---

41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19-22.

42 이승희, 앞의 논문(2015), pp.49-51.

두 번째 유형		
	도 7. <관경16관변상도>, 고려 1323년, 비단에 채색, 224.2×139.1cm, 일본 교토 지온인(知恩院) (『고려시대의 불화』, 도 56)	도 8. <관경16관변상도>, 고려 1323년, 비단에 채색, 214.2×112.5cm, 일본 愛知縣 린소지(隣松寺) (『고려시대의 불화』, 도 55)

2.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독자적 해석

1) 석가정토와 왕생자에 대한 인식과 표현

먼저 사이후쿠지 <16관변상도>를 통해 아미다지본과 달라진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도 5).⁴³ 두 불화는 화면의 구성과 배치가 거의 일치하며, 중앙에 구품왕생장면에 부각시킨 것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사이후쿠지본이 아미다지본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사이후쿠지본에서는 상단에 석가설법회를 표현하고 구품왕생자의 배치를 다르게 하고 있다. 아미다지본에서는 상품왕생자를 하단에 배치한 반면, 사이후쿠지본에서는 화면의 상단에 배치한다. 다시 말해 아미다지본에서는 화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상승할 수록 상품→중품→하품으로 내려가는 구조이다. 즉 근기가 낮은 왕생자를 상단에 배치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사이후쿠지본에서는 반대로 하품→중품→상품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어 화면상단에 상품의 왕생자가 자리한다. 결과적으로 상품왕생자의 위쪽에 석가모니 설법회가 표현된다. 이러한 배치의 변화 이유를 1관(日觀)의 계송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일관의 옆에는 ‘安樂世界佛會圖’라는 방제와 “피안의 정토세계를 관상하여 아미타불을 깨닫고, 삼계를 초월하여 법왕(석가모니불)에게로 참된 왕생하니(觀彼世界相 正覺阿彌陀 勝過三界道 法王善往生)”라는 계송이 적혀 있다. 방제와 계송의 내용에 의해 상단에 그려진 석가모니설법회는 ‘安樂世界佛會圖’가 아닌 ‘안락세계에 관해 설법한

43 본 장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5-34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釋迦牟尼佛의 佛會圖'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왕에게로 참된 왕생하니'라는 글귀에서 법왕은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므로 석가설법회를 석가정토(상적광토)를 중의적으로 암시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⁴⁴

불교에서 극락왕생은 성불을 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다만 극락에 왕생하였다 하더라도 성불에 이르는 데에는 근기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다. 근기가 높은 상품의 왕생자는 적은 수행에도 성불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상단에 상품왕생자들을 표현한 것은 이들이 석가세계로의 참된 왕생에 좀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사이후쿠지본의 수기장면과 오타카지 소장 <16관변상도>에서도(도 6) 고려인들의 왕생자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사이후쿠지본의 '수기장면'에서는 왕생자가 보살의 형상처럼 표현되어 있고(도 5-1), 오타카지본에서도 아미타수기장면과 함께 상품, 중품, 하품의 왕생자를 모두 보살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수기장면과 상중하품의 왕생자를 모두 보살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왕생자의 보살행 혹은 보살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⁵



도 5-1. 수기 장면, 하단 항좌측

成佛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조건이 있는데, 천태와 화엄에서는 '보살행'을 그 조건으로 중시하고 있다.⁴⁶

천태지지는 『법화삼매참의』에서 “임종 시에 안양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받들어 十地의 수승한 樂을 수행하기를 발원한다”고 하였다.⁴⁷ 十地는 보살의 수행 단계로⁴⁸ 부처의 지혜를 생성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보살행의 가장 근간을 형성하는 것은 ‘중생구제’이다. 극락세계에서의 중생구제사상이 고려후기에 중시되었음은 백련결사 2대 법주인 천인이 쓴 『法華懺法禮文』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에서 “석가모니불과 『法華經』의 제불·보살에 귀의한 후 참회하면 극락세계인 아미타국에 갈 수 있고, 아미타국에서 새로운 불력을 만나 무생인을 깨닫고 널리 중생의 구제도 서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⁴⁹ 이처럼 보살행을 통한 성불사상은

44 자세한 내용은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22-25.

45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는 오타카지 <16관변상도>에 구품왕생자를 모두 보살의 형상으로 묘사한 것은 지례의 영향이라고 보았다(이데 세이노스케, 『絹本著色 觀經十六觀變相圖 一幅』, 『茨城の文化財』(茨城縣教育委員會, 2002).

46 李永子, 『법화경의 보살사상』, 『법화·천태사상연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2002년 초판)), pp.93-109.

47 智顗, 『法華三昧懺儀』(T. 46, 953b22), “……願命終時神不亂 正念直往生安養 面奉彌陀值眾聖修行十地勝常樂……”.

48 歡喜地, 離垢地, 明地, 焰地, 難勝地, 現前地, 遠行地, 不動地, 善慧地, 法雲地를 말한다.

49 天因, 『法華懺法禮文』, “右稽首歸命 于靈山會主 我本師釋迦如來爲首法華經中……令我所有業障 從今懺悔……皆悉迴向極樂世界彌陀佛國……成就大智 悟無生忍圓滿功德 神通自在 廣度衆生……”.

천태정토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토관을 <16관변상도> 왕생자 도상에 투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후쿠지본이나 오타카지본에서 보듯 구품왕생장면을 화면 중간에 배치하고 크게 강조한 것은 송대의 <16관변상도> 형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품왕생 장면의 재배치와 보살형 왕생자의 표현은 고려인들이 왕생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결정적으로 사이후쿠지본이 앞서 살펴본 아미다지 <16관변상도>의 왕생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본 학자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와 오히라 요시토요(大原嘉豊)는 아미다지본에 대해서 북송 초에 영파·항주에서 천태교를 주도했던 四明知禮의 정토 교리와 북송 말에 활동했던 律宗僧 元照의 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⁵⁰ 그러나 일본 학자 야마카와 아키는 더 나아가 元照의 정토사상에 영향받아 조성된 나라 아미다지 소장 <16관변상도>를 고려후기의 <16관변상도>에 적용시키고 있다.⁵¹ 이러한 해석은 元照가 고려 후기 불교사상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고려 후기 불교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일본 학자들의 일방적인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불·보살관의 확대와 여인 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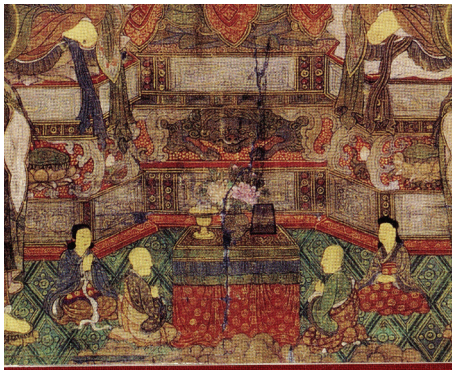
사이후쿠지와 오타카지 소장 <16관변상도>는 석가정토의 개념과 구품왕생자의 형상과 배치를 통해 고려인들의 『관경』 인식을 보여주었다면, 1323년 지온인본과 린쇼지 소장 <16관변상도>는 전혀 다른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화면을 완전히 해체하여 재구성하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극락세계의 다양한 장면을 표현한 의보관(1~6관)과 구품왕생장면을 각각 상단과 하단에 배치하여 비중을 줄이고, 불·보살관인 정보관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정보관은 화면의 중앙에 3/5을 차지할 정도이며(도 7-1), 기존의 8~13관까지 개별적으로 그려졌던 도상은 재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미타삼존불을 3단에 걸쳐 배치하여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삼존불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관의 재구성은 수행자가 마음의 수행을 통해 아미타불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16묘관수행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16묘관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관법으로 미타불이



도 7-1. <관경16관변상도> 중 8~13관

50 이데 세이노스케는 16관 중 후 삼품인 구품왕생장면의 해석에 주력하였다. 이데 세이노스케, 앞의 논문(2005), pp.19-37; 오히라 요시토요, 앞의 논문(2005), pp.40-41.

51 야마카와 아키, 앞의 논문(1997), pp.139-155.



도 7-2. 12관의 왕생자 모습

한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관법이다. 따라서 화면 중앙에 불·보살관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깨닫고 부처와 일체가 되는 순간의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구성이다. 자신의 마음 속의 불성을 깨닫는 관상수행이 성행했던 배경에는 대중을 기반으로 교세를 떨쳤던 백련결사가 개경의 수도에 정착하여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중앙교단에 정착해 선종 이상의 세력을 넓혔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⁵²

정보관 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중앙에 그려진 9~12관까지의 장면이다. 아미타부처님의 眞身觀(9관), 觀音菩薩觀(10관), 勢至菩薩觀(11관), 普觀(12관)이 모여 아미타설법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으로, 수많은 승려와 보살들이 에워싼 채 설법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미타불은 9관에 해당하며, 아미타불의 좌우측에 자리한 관음과 세지보살은 각각 10관과 11관이 된다. 그리고 삼존불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보탁을 사이에 두고 합장한 2명의 승려와 여인은 앞의 세 관과 합해져 보관(12관)을 형성한다. 이처럼 9~12관을 마치 설법회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구성이며, 왕생자로 표현된 인물들은 실제 고려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온인본에는 2명의 승려와 여인이 표현되어 있는데(도 7-2), 승려가 아미타불을 향하고 있는데 반해 두 여인은 아미타삼존을 등지고 있어 이들 사이에 신분 차가 있음을 암시한다. 보관은 두루 살펴본다는 의미로 ‘자기의 왕생을 생각하는 관’이다. 사이후쿠지본이나 오타카지본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을 표현한데 비해, 지온인본에서는 고려의 승려와 고위층 여성 인 듯한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인물을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은 화기에 있다. 발원자로 “勸善道人 日□ 同願道人 眞□ 同願道人 志□ 同願道人 戒澄 同願別將朴永□ 同願夫人金氏 同願嫁正金仁 同願大禪師承□ 同願淨業院住持僧統祖□”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주목되는 인물이 ‘大禪師’와 ‘僧統’의 직함과 ‘淨業院’이라는 용어이다. 대선사와 승통은 선종과 교종의 최고 직함이며 왕사, 혹은 국사가 될 수 있는 최고위층 승려이다. 정업원은 왕실 여인들의 출가처로 선왕의 후궁과 왕실 여인들의 거취와 예우 등의 문제가 생기자, 왕들은 궁궐에서 가까운 도성 내에 집을 마련하여 宮으로 삼아 이들을 옮겨 살도록 한 데서 유래한 比丘尼院이었다. 정업원은 이후 조선 초기 15세기까지 존속하며 역대 왕비나 후궁들과 士族 여인들의 귀의처로서 기능하였다.⁵³ 이러한

52 관상수행과 화면구성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는 이승희, 앞의 논문(2015), pp.51-57에 자세히 실려 있다.

53 이기운, 「조선시대 정업원의 설치와 불교실행」, 『종교연구』 25(2001), pp.155-174; 同著, 「조선시대 왕실의 比丘尼院 설치와 실행」, 『歷史學報』 178(2003), pp.29-58; 황인규, 「조선전기 정업원과 비구니주지」, 『韓國佛敎學』 51(2008), pp.103-129.

사실들을 볼 때 보관에 표현된 인물들은 이 불화를 발원한 고위 승려와 정업원의 여인들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인물을 엮두에 두고 그렸다는 사실은 린쇼지본 보관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2명의



도 8-1. 12관의 왕생자 모습

승려 뒤에 한 명의 남성재가신도와 여성재가신도가 아미타삼존을 향하고 있다(도 8). 화기에는 “內侍 徐 智滿, 道人 智鐸, 林 性圓과 李氏가 발원하고 洛山下人, 楊州棲, 中道棲 등 18명 외에 楊州女香徒” 등이 시주하였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시주자가 여향도회이다. 실제로 린쇼지본의 여성왕생자의 형상과 자세 그리고 복장, 신분을 고려한 듯한 자리배치 등을 볼 때 지온인본의 여성보다 신분이 낮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이후쿠지 <16관변상도>가 송대 <16관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의 전통을 계승한 반면, 지온인본은 사이후쿠지본과 전혀 다른 화면구성과 도상을 창출하여 고려적으로 변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송대 관경변상도 형식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점차 구성을 달리하여 고려인들의 정토인식과 보살행을 통한 대중구제와 같은 대승적 차원의 불교인식을 불화에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당·송대 관경변상도의 조성배경과 구성 및 도상이 다름을 밝히고, 그 영향을 받아 조성된 고려 16관변상도의 원류와 독자성을 찾고자 하였다. 당대 유행했던 관경변상도는 중국의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등지에서 영향력이 컸던 선도교학의 영향 하에 조성되었고, 선도의 영향은 『관경』 16관의 도상에서 간취할 수 있었다. 선도는 『관경』 중 1~13관까지를 정선관이라 하여 위제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위제희가

각 관에 관상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반면 14~16관까지는 산선관이라 하여 위제희의 요청 없이 석가모니불이 대중을 위한 관이므로 위제희가 표현되지 않는다. 대신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까지도 구원한다는 선도의 정토관이 반영되어 하품왕생자들이 지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미타불을 따라 극락왕생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송대 관경변상도는 당대의 것과 화면의 구성과 도상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당대 관경변상도가 아미타정토변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송대 관경변상도는 아미타정토변상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형식의 불화로 제작되었다. 『관경』의 서분과 16관도 따로 나누어 두 폭으로 그리거나 서분을 극도로 약화시켜 표현하고 『관경』의 16관을 강조하였다. 6관변상도의 표현에 있어서도 1~13관까지의 장면보다 구품왕생장면이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지는데, 구품의 장면이 극락왕생 이후의 장면으로 표현되어 왕생 이후 극락세계에서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왕생자의 극락왕생이 주된 관심사였던 선도의 정토관과는 다르게 왕생 이후에 수행을 통한 성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송대 16관변상도에는 율종승 원조의 해석도 보인다. 원조는 선도의 정토사상을 수용하여 왕생자의 상중하품을 보살중, 성문중, 인민중으로 나누었는데, 그의 해석을 수용하여 16관변상도의 상품을 보살중, 중품을 성문중, 하품을 인민중으로 그렸다. 그러나 원조의 사상이 투영된 관경변상도는 고려에서는 조성되지 않았다.

송대의 16관변상도 형식이 고려로 전래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교역항이었던 영파를 통해 12~13세기 경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대 16관변상도의 형식을 계승한 고려 후기 16관변상도에는 사이후쿠지본과 오타카지본이 있으며, 지온인본과 린쇼지본은 한 단계 진화하여 화면의 구성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이후쿠지본과 오타카지본은 송대 16관변상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구품왕생장면의 배치와 구품왕생자의 모습을 보살형으로 표현하는 등에서 고려인들의 정토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지온인본에서 극락세계를 관하는 1~7관과 구품왕생장면을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작게 배치하고, 중앙에 8관부터 13관까지에 해당하는 아미타불, 보살관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마음의 수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을 감득하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보관에 표현된 실제 발원자를 형상화한 듯한 왕생자들의 모습에는 불화 조성에 적극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겨있다.

고려 후기 16관경변상도는 송대 관경변상도 작례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대단히 의미가 큰 불화이다. 또한 고려 후기 사람들의 정토인식과 창의성을 담고 있어 예술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도 매우 높다.

투고일 2019. 3. 20. | 심사개시일 2019. 4. 12. | 게재 확정일 2019. 5. 16. |

【經典·史料】

- 善導, 『觀念阿彌陀佛相海三昧功德法門』, T. 47.
——, 『觀無量壽佛經疏』, T. 37.
元照, 『觀無量壽佛經義疏』, T. 37.
張彦遠, 『歷代名畫記』(장언원 지음, 조송식 옮김, 『역대명화기』, 서울: 시공아트, 2008)
宗曉, 『樂邦文類』, T. 47.
志磐, 『佛祖統紀』, T. 49.
智顗, 『法華三昧懺儀』, T. 46.

【圖錄·報告書】

- 『鎌倉佛教』, 田中久夫 歴史新書 58, 東京: 春秋社, 1980.
『高麗佛畫』, 東京: 朝日新聞社, 1981.
『고려불화대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0.
『高麗, 영원한 美』, 서울: 호암미술관, 1998.
『고려·조선의 대외교류』,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大勸進 重源』,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6.
『圖說 日本の佛教 三・淨土教』, 東京: 神朝社, 1989.
『東アジアの佛たち』,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最澄と天台の國寶』, 京都: 京都國立博物館, 2005.
『特別展高麗佛畫: わが國に請來された隣國の金色の佛たち』, 奈良: 大和文華館, 1978.
『特別展覽會淨土教繪畫』, 京都: 京都國立博物館, 1973.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鄭于澤, 『高麗時代の佛畫』, 서울: 시공사, 1997.
『敦煌 阿彌陀經會卷圈』, 香港: 商務印書館, 2002.

【國文 論著】

- 강호선, 「원간섭기 천태종단의 변화」, 『보조사상』16, 2001.
계환, 『한국불교 정토종 법맥과 정토사상』, 서울: 무한, 2001.
고익진,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 『한국천태사상연구』, 불교문화연구소, 1983.
——, 『韓國天台思想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3.
김성수,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27, 2004.
김성순,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연구 - 천태교단을 중심으로 -』, 서울: 비움과 소통, 2014.
김은희, 「四明知禮의 天台淨土觀 研究-『觀無量壽經疏妙宗鈔』를 中心으로」, 『淨土學研究』創刊號, 1998.

- _____, 「知禮의 約心觀佛에 대한 연구-約心の 문제-」, 『佛敎學報』 39, 2002.
- _____, 「천태 정토사상(天台淨土思想)의 특징과 의의」, 『金剛』 통권211호, 2002. 8.
- _____, 「천태지의의 정토수행 연구 : 善導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연구논집』 Vol.27, 1997. 12.
- _____, 「觀無量壽經疏妙宗鈔」의 淨土思想,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서울: 불지사, 1997.
- 김해중, 「高麗와 宋과의 교류」, 『國史館論叢』 8, 1989.
- 김혜원, 「둔황 막고굴 제220굴〈서방정토변〉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9권, 2010. 10.
- 남권희, 「13세기 천태종 관련 고려불경 3종의 서지적 고찰」, 『書誌學報』 19, 1997.
-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亨)著, 李太元 譯, 『中國淨土敎理史』, 서울: 운주사, 1997.
- 문명대, 「高麗 觀經變相圖의 研究」, 『佛敎美術』 6, 1981.
- 미치바타 료오슈(道端良秀),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 서울: 우리출판사, 1996.
- 변동영, 「高麗 忠烈王의 妙蓮寺 창건과 法華信仰」, 『한국사연구』 104, 1999.
- 송은석, 「高麗 後期 觀經十六觀變相圖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柳麻理, 「中國 敦煌莫高窟(17窟)發見의 觀經變相圖(빠리 기메東洋博物館藏)와 韓國 觀經變相圖(日本 西福寺藏)의 비교고찰」, 『講座美術史』 4, 1992.
- _____, 「韓國 觀經變相圖와 중국 觀經變相圖의 比較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 윤기엽, 「元干涉期 天台宗寺院의 흥성과 불교계 動向」, 『韓國佛敎學』 37, 2004. 5.
-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宋·元代 불화의 특색 - 禮拜像의 視覺表象 -」, 『동아시아 불교회화와 고려불화 - 제3회 국립중앙박물관 학술미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0.
- 이승희, 「1323년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20집, 2015. 12.
- _____, 「고려 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 12.
- _____, 「고려 후기 입상 아미타불 도상의 재해석」, 『미술사학연구』 289, 2016. 3.
- _____, 「고려 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 - 천태·화엄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6.
- 이영자 역주, 『天頂스님의 호산록』, 서울: 해조음, 2009.
- _____, 「天頂의 天台思想」, 『佛敎學報』 17, 1980.
- _____, 『法華·天台思想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서울: 민족사, 1988.
- 장휘옥, 『정토불교의 세계』, 서울: 불교시대사, 1996.
- 전해중, 「高麗와 宋과의 關係」, 『동양학』 7, 1977.
- 榮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韓國史論』 5, 1979.
- 최병헌, 「義天和 宋의 天台宗」,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 한국불교문화사상사(上)』, 서울: 가산문고, 1992.
- 최성은, 「高麗時代 佛敎彫刻의 對中關係」,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서울: 예경, 2004. 10.
- 츠보이 슌에이(坪井俊映) 著, 李太元 譯, 『淨土三部經概説』, 서울: 운주사, 1995.

키무라 키오타카, 장휘옥 옮김, 『中國佛教思想史』, 서울: 민족사, 1991.

한보광, 「圓妙了世의 淨土觀」, 『佛教學報』 36, 1999.

허흥식, 『眞靜國師와 湖山錄』, 서울: 민족사, 1995.

황인규, 「高麗後期 白蓮結社 精神의 變質과 繼承」, 『백련불교논집』 10, 2000.

황해민, 「西方淨土變形式的形成過程與完成時間」, 『동양미술사학』 Vol.2, 2013.

【日文論著】

高崎富士彦, 「觀經十六觀變相圖」, 『MUSEUM』 100,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59.

谷口耕生, 「聖地寧波をめぐる信仰と美術」,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菊竹淳一, 「高麗時代の佛教繪畫」,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10, 東京: 小學館, 1998.

_____, 「高麗佛畫にみる中國と日本」, 『高麗佛畫』, 東京: 朝日新聞社, 1981.

吉村稔子, 「清涼寺藏迎接曼荼羅と上品上生往生願」, 『美術史』 126, 1989.

大西磨希子, 「淨土寺阿彌陀三尊像の造立における重源の宗教的意圖-元照の淨土思想の影響-」, 『美術史研究』 34, 1996. 12.

大原嘉豊, 「觀經十六觀變相圖」, 『國華』 1313, 2005. 3.

北澤 菜月, 「寧波佛畫の居場所」,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實田 隆, 「南都阿彌陀寺所藏 觀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 『大和文化研究』 4권 4호, 1957. 3.

_____, 『鎌倉繪畫』, 日本的美術 206, 東京: 至文堂, 1983.

山川 暁, 「長香寺本觀無量壽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宋代淨土教繪畫の受容と展開-」, 『美術史』 142, 1997.

西山 厚, 「重源と勸進」, 『大勸進 重源』,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6.

松本榮一, 「阿彌陀淨土變相及觀經變相」, 『敦煌畫の研究』, 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37.

安藤俊雄, 『天台學論集-止觀と淨土』, 京都: 平樂寺書店, 1978.

岩田茂樹, 「重源の生涯とその事蹟-佛像を中心に-」, 『大勸進 重源』,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6.

林 鳴宇, 『宋代天台教學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2003.

井手誠之輔, 「絹本着色 觀經十六觀變相圖 一幅」, 『茨城の文化財』, 茨城縣教育委員會, 2002.

_____, 「時空の旅人-宋元佛畫をめぐって-」, 『宋元時代の佛畫』, 2007.

_____, 「日本の宋元佛畫」, 『日本的美術』 418, 東京: 至文堂, 2001.

佐藤成順, 「元照における戒律と淨土教」, 『宋代佛教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2001.

_____, 『宋代佛教の研究-元照の淨土教』, 東京: 山喜房佛書林, 2001.

中尾 堯, 「日本の名僧, 旅の勸進聖 重源」, 東京: 吉川弘文館, 2004.

中村興二, 「わが國の淨土變相と敦煌」, 『敦煌莫高窟』 3, 東京: 平凡社, 1986.

太田博太郎, 中村 元, 濱田 隆 監修, 『淨土教-圖說 日本佛教 三』, 東京: 新潮社, 1989.

河原由雄, 「觀經曼荼羅圖」, 『國華』 1013, 1978.

_____, 「敦煌淨土の成立と展開」, 『佛教藝術』 68, 1969.

_____, 『浄土曼荼羅から迎攝圖へ-高麗・李朝觀經變相圖の展開』, 『日韓兩國所在韓國佛教美術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3.

_____, 『浄土圖』, 日本的美術 272, 東京: 至文堂, 1989.

海老根聰郎, 『寧波佛畫の故郷』, 『國華』1097, 1986. 10.

【中國 論著】

敦煌研究院 主編, 施萍婷 本卷主編, 『阿彌陀經畫卷』, 敦煌石窟全集 5, 香港: 商務印書館, 2002.

張景峰, 『莫高窟第431窟初唐觀無量壽經變與善導之法門在敦煌的流傳』, 『敦煌研究』2010年 4期.

施萍婷, 『關於敦煌壁畫中的無量壽經變』, 『敦煌研究』2007年 2期.

The Origins and Identity of Late-Goryeo Transformation Tableaux of the Sixteen Visualizations of the ‘Visualization Sutra’

Lee Seunghui*

This study examines the compositions and icon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ang and Song Dynasty transformation tableaux of the Visualization Sutra (觀無量壽經), accompanied by educational interpretations. Its aim was to determine the origins and identity of Goryeo Visualization Sutra transformation tableaux through the study of issues of Chinese regional characteristics. Visualization Sutra transformation tableaux prevalent during the Tang Dynasty were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Seon Buddhist doctrinal interpretation, which was highly influential in areas such as Shaanxi, Shanxi and Henan provinces. In Seon Buddhism visualizations 1~13 of the Visualization Sutra, known as “contemplations,” are said to have been created at the request of Queen Vaidehi. Perhaps because of this, Vaidehi appears in contemplation in each visualization in Tang Dynasty Visualization Sutra transformation tableaux. Visualisations 14~16, by contrast, describe the nine levels of rebirth into the Pure Land and show Shakyamuni preaching for the benefit of the general public, not at Vaidehi’s request. Therefore, the queen is not depicted in these visualizations. Instead, they show those in the lowest grades of rebirth following Amitabha and being reborn in paradise despite having descended into hell, reflecting the Seon Pure Land beliefs.

Song Dynasty Visualization Sutra transformation tableaux differ considerably from those of Tang in terms of both composition and iconography. While those of Tang are positioned around the Amitabha Pure Land tableau, those of Song are separated from the Amitabha Pure Land transformation tableau and produced as independent Buddha paintings. The introductory section and 16 visualizations of the Visualization Sutra, too, are divided and painted as two pictures, or rendered with the introductory section strongly diminished and the 16 visualizations emphasized. When it comes to the depiction of the 16 visualizations, too, scenes from the nine classes of rebirth in the Pure Land are painted larger and located more centrally than those of the 13 visualizations, placing

* Researcher, Korea Traditional Research Institute, Hanseo University

the focus not on the process of rebirth in the Pure Land but on scenes of listening to preaching in the Pure Land after rebirth. I believe this depiction reveals an interest in attaining Buddhahood through religious practice after Pure Land rebirth, in contrast to Seon Pure Land belief, which was interested principally in rebirth in paradise itself.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specify the precise time when the Song forms of transformation tableaux of the sixteen visualizations of the Visualization Sutra were introduced to Goryeo, they are presumed to have been transmitted around the 12th or 13th century via Ningbo, the city used by both states as their official trading port. After inheriting Song styles, the transformation tableaux of late Goryeo showed a further stage of evolution, taking apart and reconstituting compositions, as seen in examples now housed in Saifukuji, Otakaji, Chionin and Rinshoji temples in Japan. The Saifukuji and Otakaji paintings maintain the Song sixteen visualization transformation tableaux form while demonstrating the Pure Land ideas of Goryeo in details such as the layout of scenes from the nine classes of rebirth in the Pure Land and in their depiction of the reborn as bodhisattvas in scenes of prophecies of attaining Buddhahood. In the Chionin painting, by contrast, visualizations 1~7 visualizing paradise and scenes from the nine classes of rebirth in the Pure Land are placed in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work and rendered in a small size, while visualizations of Amitabha and bodhisattvas, corresponding to numbers 8~13, are depicted in a larger size and afforded a central position. This demonstrates the Goryeo concept of trying to perceiving Amitabha through mental and spiritual practice. The reborn souls that appear to represent the actual individuals who commissioned the painting are depicted in visualization 12, testifying to the strong desire for Pure Land rebirth among those in Goryeo who sponsored the production of Buddhist paintings.

Keywords: Transformation Tableaux of the Visualization Sutra, Seon Buddhism, Ningbo, Rebirth in the Pure Land, Religious Practice, Saifukuji Temple, Otakaji Temple, Chionin Temple, Rinshoji Temple